



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
 전화 : 86-10-6505-2671/3
 이메일 : beijingk@kita.net

1 中, 제2회 국제 소비재 박람회(7/26~30) 개최 예정

- 제2회 중국 국제 소비재 박람회가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하이난성(海南) 하이커우시(海口)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전시면적은 제1회 8만 평방미터에서 10만 평방미터로 확대되었음
- 소비재 박람회는 상무부와 하이난성 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국가급 4대 전시회 중 하나로, 중국 내 첫 번째의 소비재 위주의 국가급 전시회이자 아태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소비재 전시회임
- 이번 박람회 기간 '국제 전시관' 면적이 전체의 80%로 총 6개 전시관으로 구성됨. 1~5호관은 독립 브랜드 전시관이고 6호관은 글로벌 직구 전시관임. '국내 전시관' 면적은 2만 평방미터로 총 2개관이며, 7호관은 중국 지역별(성·시) 전시관이고 8호관은 중국산 우수 소비재 전시관임
- 현재까지 700여개 전시업체가 전시회 참가를 확정하였고 57개 국가(지역)의 1,300개 브랜드를 망라하며 많은 글로벌 선도 브랜드가 프리미엄 제품을 소비재 박람회를 통해 선보일 예정임

자료원 : 베이징일보

<https://www.zgswcn.com/article/202207/202207030931361001.html>

2 中, 1~6월 화물 발송량 19.5억 톤 달성

- 중국 국가철도그룹에 따르면 1~6월 철도 화물 발송량은 누적 19.5억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억 톤 증가하여 증가율이 5.5%이며, 일평균 화물 발송량 등 여러 지표가 역대 신기록을 달성했음
- 1~6월 철도화물 적재 차량수는 일평균 17.8만 대로 전년 동기대비 1만 대 증가하여 증가율이 5.9%에 달함. 동기간 철도를 통한 석탄 운송량은 10.4억 톤으로 7.9% 증가하였고, 이 중 전력용 석탄이 6.9억 톤으로 9.1% 증가함
- 1~6월 중국-유럽 화물열차 운행 횟수는 7,473만 회로 총 72만 표준컨테이너를 운송하였으며,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이 각각 2.0%, 2.6%로 집계됨

자료원 : 신화망

http://www.news.cn/fortune/2022-07/02/c_1128798499.htm

3 中, 1~5월 석탄 일간 생산량 1,200만 톤으로 역대 최고치

- 중국석탄공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~5월 석탄 일간 생산량은 1,200만 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여름철 석탄시장은 계속하여 안정세를 유지 중임
- 1~5월 석탄 누적 생산량은 전년 동기대비 10.4% 증가한 18억 톤으로 공급량이 대폭 제고됨
- 석탄공업협회 관계자는 현재 중장기 계약을 체결한 석탄 총량이 전국 석탄 수요의 75% 이상에 달하며 중장기 계약 비중 상승은 석탄 공급 및 가격 안정에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분석함
- 6월 29일까지 북방지역 9개 항구의 석탄 재고는 2,546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468만 톤 증가하여 역대 동기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(*9개 항구로는 다렌항, 잉커우항, 진저우항, 친황다오항, 탕산항, 황화항, 텐진항, 칭다오항, 르자오항 등임)
-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발전용 석탄가격은 톤당 943위안(약 18.3만원)으로 전보다 소폭 하락했고 네이멍구자치구 상무청에 따르면 6월 18일부터 24일까지 5000~5500kcal/kg 중열량 석탄가격은 톤당 660위안(약 12.8만원)으로 전주보다 0.2% 하락함

자료원 : 중국증권보

http://www.ce.cn/cysc/ny/gdxw/202207/04/t20220704_37827834.shtml

4 中, 디지털 경제 규모 2,322조원 이상으로 성장

-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디지털 경제가 빠른 성장세로 산업규모가 수년간 글로벌 2위를 유지하고 있으며, 2012~2021년 디지털 경제 규모는 11조 위안에서 45조 위안(약 2,322조원)으로 성장하였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.6%에서 39.8%로 상승함
- 올해 5월까지 글로벌 최대 규모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5G 기지국수가 170만 개, 5G 이용자가 4.2억 명으로 증가하였음. 2021년 규모 이상(*연매출 2,000만 위안 이상) 전자정보 제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15.7%로 최근 10년간 최고치를 달성하였고,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업, 인터넷 및 관련 서비스업 기업의 매출이 각각 17.7%, 16.9%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

- 빅데이터, 클라우드컴퓨팅, AI기술의 산업, 에너지, 의료, 교통, 교육, 농업 등 분야 응용이 가속화되었으며, 올해 6월 말 기준 산업인터넷은 국민경제 45대 업종 및 300여개 도시에 보급됨. 2021년 상품 온라인 소매판매액은 전년 대비 12.0% 증가한 10조 위안(약 1,938조원), 모바일 결제 업무량은 22.7% 증가한 1,512억 건을 기록함

자료원 : 인민일보

http://www.ce.cn/cysc/tech/gd2012/202207/03/t20220703_37826359.shtml

5 中 자동차 수출, '글로벌 1위' 바짝 추격

- 중국의 자동차 수출량은 20년 전 2만 대에 불과했지만 현재 200만 대 이상으로 증가하였음. 2021년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처음 200만 대를 돌파한 201.5만 대로 일본과 독일에 이어 3위를 기록했으며, 올해 1~5월 108만 대를 수출하여 자동차 수출 1위국 일본의 뒤를 추격 중임
-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1~4월 중국의 자동차제품 수출 상위 10대 국가는 미국, 멕시코, 일본, 벨기에, 러시아, 한국, 독일, 영국, 호주, 사우디아라비아로 집계됨
- 한편 업계에서는 자동차 수출은 자동차 제품 및 브랜드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한 서비스 수출이 포함되며 경영방식, 무역, 물류, 문화교류, 심지어 국가 형상도 망라하고 있어 자동차 기업들이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졌다고 분석함. 최근 모 자동차 회사는 고위급 회의를 거친 후 해외 수출 대상지역을 아태지역 신흥시장에서 유럽으로 전환시켰음

자료원 : 재경잡지

<https://finance.ifeng.com/c/8HMIlwTN4yB>

6 1997~2021년 광둥과 홍콩 간 교역액 연평균 6.1% 증가

- 광둥성 해관에 따르면 광둥성과 홍콩 간 교역액이 1997년 2,799억 위안(약 54조 원)에서 2021년의 1조 1,700억 위안(약 227조 원)으로 연평균 6.1%씩 성장하였음
- 또한 지난 20년간 광둥성과 홍콩간은 보세물류, 일반무역이 빠르게 발전함. 1997년부터 2021년 광둥성이 홍콩에 대한 보세물류 방식의 수출입은 48억 위안(약 9,302억 원)에서 2,816억 위안(약 55조 원)으로 성장하여 수출입 비중이 1.7%에서 25.3%로 상승했고, 동기간 일반무역 수출입은 817억 위안(약 15.8조 원)에서 2,999억 위안(약 58조 원)으로 연평균 5.6% 성장함

- 수출 상품을 보면 광둥성은 홍콩에 의류, 완구 등 노동집약형 제품 위주로 수출했으나, 점차 부가가치가 높은 전기기계 제품 수출로 전환 중임. 1997~2021년 광둥성이 홍콩에 대한 전기기계 제품 수출은 연평균 11.2%씩 성장하여 수출 비중이 30.1%에서 82.1%로 상승했고, 이 중 첨단기술 제품 수출은 연평균 17.2% 성장하여 수출 비중이 6.6%에서 63%로 상승하였음

자료원 : 인민일보 해외판

http://paper.people.com.cn/rmrbhwb/html/2022-07/02/content_25926231.htm

7 中, 5월 영유아용 조제분유 수입량 전월 대비 21.7% 증가

-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~5월 각종 유제품 수입량이 하락하였고 5월 들어 중국내 코로나19 상황 호전으로 유제품 수입이 회복세를 보였으나 전년 동기대비 여전히 하락세임
- 4월 글로벌 인플레이션,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영유아용 조제분유 수입가가 대폭 상승하여 수입량이 감소했으나, 5월에는 수입가가 소폭 하락하여 수입량이 전월 대비 21.7% 증가하였음
- 1~5월 전체 유제품 수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17.3% 감소한 154만 톤, 수입액은 3.3% 증가한 63억 달러임. 이 중 건조 유제품 수입량은 16.8% 감소한 108만 톤, 액상 유제품 수입량은 18.4% 감소한 46만 톤으로 집계됨
- 품목별로는 수입량이 적은 요구르트 외 기타 품목 수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모두 하락세를 보였고, 특히 유청 단백질 수입량이 40% 감소함. 수입가를 보면 연유(炼乳)와 요구르트를 제외한 기타 유제품은 전부 상승하고 단백질류 유제품의 최대 상승폭은 50%에 달했음

자료원 : 광저우일보

<https://www.gzdaily.cn/amucsite/web/index.html#/detail/1870382>

8 中, 구강건강 인식 제고로 구강용품 시장 빠른 성장세

- 최근 중국인 소비자의 구강건강 인식 제고로 구강용품 시장이 빠른 성장세를 보임. 중상연구원(中商研究院)에 따르면 중국의 구강용품 소매판매액은 2017년 582억 위안(약 11.2조원)에서 2021년 1,025억 위안(약 19.8조원)으로 연평균 15.5% 성장. 2022년에는 1,155억 위안(약 22.3조원), 2025년에는 1,522억 위안(약 29.4조원)으로 성장할 전망
- 2021년 상반기 중국내 구강용품 기업 20개사가 50억 위안(약 9,652억원) 규모의 투자를 받았으며, 이 중에는 찬반(参半), moqi, 야뷔스(牙博士), Oclean 전동칫솔 등의 새로운 구강용품 브랜드와 구강의료 서비스 종사기업이 포함됨

- 구강케어 관련 수요를 볼 때 향균, 미백, 민감성 치아 등이 주를 이루고 효소, 유산균, 베이팅소 다 등 성분을 첨가한 제품도 인기임. 구강용품 생산업체는 제품 차별화에 주목하며 제품 형태, 포장 디자인 등의 혁신을 통하여 고급화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
- 한편 중국에서 치약이 화장품으로 분류되면서 치약 등록 규정도 제정 중이며, 향후 '치약 감독관 리방법'이 정식 실시되면 품질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

자료원 : 중국상보망

<https://www.zgswcn.com/article/202206/202206161636121131.html>

9 中, 휴대용 보조배터리 판매량 급증... '차세대 블루오션' 시장으로 주목

- 최근 중국에서 캠핑이 유행하면서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을 충전할 수 있는 휴대용 보조배터리가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, 휴대용 보조배터리 분야가 차세대 블루오션 시장으로 떠오를 전망. 기술력 향상으로 휴대용 보조배터리의 생산원가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
- 온라인 쇼핑몰 징둥(JD)의 경우, 618 쇼핑절 기간(5/23 ~ 6/18, 중국 2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징둥(京東)그룹 창립일인 6월 18일을 기념하여 열리는 할인행사로, 현재는 다수의 온라인 쇼핑 업체가 참여하여 하반기 광군절에 대응하는 중국 상반기 최대 온라인 쇼핑 행사로 자리잡음) 휴대용 보조배터리의 판매액이 1000% 증가하였고 6월 17일 저녁 8시부터 6월 18일까지는 무려 2000% 급증세를 보였음. 한편 휴대용 배터리 제조업체 에코플로우(EcoFlow)의 618 쇼핑절 기간 판매실적을 보면 티몰, 징둥, 더우인 플랫폼에서의 판매액이 각각 210%, 544%, 968% 급증함
- 중국 충전기 제조사 안커창신(安克创新)의 관계자는 휴대용 보조배터리는 야외활동에 필요한 물품으로 운반, 자외선 차단 등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당사는 배터리 셀 품질, BMS(배터리관리시스템), 외관 디자인 등을 업그레이드하였고 현재 업계에서 가장 높은 레벨의 리튬인산철 배터리 상품을 제작 중이라고 밝힘
- 중국화학물리전원업종협회(中国化学与物理电源行业协会)에 따르면 휴대용 보조배터리의 시장규모는 2021년 111.3억 위안(약 2조원)으로 성장했으며 계속하여 빠른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

자료원 : 중국증권보

<https://finance.eastmoney.com/a/202207022432638859.html>